

'햇빛소득마을' 본격 추진

무주군, 17개 마을 참여 의지... 태양광 기반 공동수의 창출

무주군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본격 나섰다. 지난 17일 밝혔다.

법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내 17개 마을이 참여 의지를 보이는 등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 부지나 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고,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구조다.

참여 마을에는 태양광 설치를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부지 임대 지원이 제공된다.

농어촌공사와 지자체 소유 저수지, 비축 농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 지원도 병행된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4일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했다.

농협 등 금융기관과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한국전력 무주지사 등



무주군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본격 나섰다.

이 참여해 총 12명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마을 수요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인, 인허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지난 13일 군민의집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지원 내용, 절차를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공동 수익 구조와 주민 동의 요건, 정책자금 지원 방식 등이 안내됐다.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다. 군은 앞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촌 소득 창출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홍삼축제' 전국 홍보

군, 수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축제 엑스포' 참가

진안군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축제 엑스포'에 참가해 2026 진안홍삼축제 홍보관을 운영하며, 대한민국 유일 홍삼 특구인 진안의 우수한 문화 관광 자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번 엑스포에서 군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와 '진안홍삼축제'의 인

지도를 높이고 방문객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진안군 마스코트인 '빠란' 캐릭터를 활용한 포스터 캘러리전과 생동감 넘치는 퍼레이드를 진행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밝게 고조시켰다. 이어지는 홍보관 운영에서도 진안군민의 세심함이 돋보였다. 운영 직원들



은 홍삼축제 공식 티셔츠를 맞춰 입고 통일감 있는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해 축제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또한 즉석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해 다채로운 기념품을 증정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친환경 전기셔틀버스' 운행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사회적 교통약자(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탐방 편의를 도모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셔틀버스'를 무료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셔틀버스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구천동주차장~백련사(약 6.1km)구간에 하루 5회 왕복 운행할 예정이며, 매주 월요일은 차량 정비를 위해 운행하지 않는다.

친환경 셔틀버스 도입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탐방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



적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휠체어 리프트를完비한 15인승 전기버스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임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국립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무주군, '슬림 나이트' 운영

무주군이 군민 건강 증진과 비만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무주군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지표 개선과 활력 있는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비만 예방 프로그램 '슬림 나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직장인 등 낮 시간 참여가 어려운 주민을 위해 야간에 진행된다.

오는 5월 28일까지 8주간 총 18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무주군보건의료원 별관 대회의실에서 운영되며, 개인별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관리가 특징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은 지난 17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부안군과 지역 먹거리 상생발전 및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진안군-부안군, 먹거리 교류협력

내륙 농산물·해안 수산물 만남... 양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 기대

진안군은 지난 17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부안군과 지역 먹거리 상생발전 및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안군의 청정 고원 농산물과 부안군의 신선한 서해안 수산물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경영 진안부군수와 정화영 부안부군수를 비롯한 양 군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협약서 서명과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양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군별 제휴푸드 특별판매전 운영, △농·수·특산물 및 가공품 상호 교류, △지역 축제 및 행사 연계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부안군에 홍삼 가공품과 고령지 수박, 사과, 고로쇠 등 농특산물을 공급하고, 부안군은 진

안군에 꽃게, 바지락 등 신선한 수산물과 젓갈류, 천일염 등을 제철 시기에 맞춰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양 지역은 각 특산물의 제철 시기에 맞춰 상대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내 '특별판매 코너'를 운영하고, 할인 행사와 집중 프로모션을 병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 교류에 따른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철 특산물 중심의 집중 교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판로 확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5월 개최되는 '부안 마실축제'를 시작으로 제휴푸드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향후 '진안 홍삼축제' 등 지역 대표 행사와 연계한 판로 확대 및 공동 마케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 전수조사 실시

진안군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해 위험지역을 사전에 발굴·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앞서 부서별 담당자를 중심으로 소관 시설과 관리 지역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1차적으로 선별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향후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는 조사 단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를 통한 위험요인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군청 누리집과 이장 회의, 재해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해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생활 주변 위험시설에 대한 주민 제보를 적극 접수하고 있다.

군은 현장점검 결과와 주민 제보 내용을 종합해 재해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7일 계곡면 덕유생학교에서 장수소방서와 협력해 '2026년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춰 기획됐으며, 덕유생학교를 시작으로 다음달 22일 산시초등학교를 방문해 순회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장수소방서 소속 전문 구급대원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구성해 높은 효용을 얻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장수군은 최근, 농업 중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도 장수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공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 고용 활성화 정책 중 하나다.

장수군은 '미래농업과 청년, 조화로움 일자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2026년 추진 전략으로 스마트농업 중심 부자농촌 △희망을 키우는 청년특화 △행복한 일상의 희망복지 △공존하는 장수의 문화관광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고용률(15~64세 기준) 77%, 취업자수 14,400명 초과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차세대 농업을 이끌 스마트팜 후계농업인 육성과 함께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울러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균형 있는 고용 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침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염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